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연령과 기능적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유인영(한양대학교 간호학과)

노인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화에 따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통하여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사회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의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문제화되어 감에 따라 지역사회라는 사회환경에서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추세에 병행하여 본 연구는 노인보건서비스의 일환으로 경로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경로당 이용 노인의 특성과 건강연령, 기능적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1996년 8월 26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서울시내 중구지역 4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86명을 대상으로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면접조사로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t-test, 피어슨 상관관계분석, 다단계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 처리로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경로당 이용 노인에 대한 건강연령 판정 결과는 -3에서 0세 미만으로 건강연령 상 긍정적 건강관리 판정을 할 수 있는 노인은 36%를 차지한 반면, 0에서 +4세 이상으로 건강연령 상 부정적 건강관리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노인은 64%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질병이 있는 대상이 없는 대상보다 건강연령이 높아서 부정적 건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04$ $p<.05$).

2. 경로당 이용노인의 기능적 건강상태는 평균 2.44로서 대체로 기능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적인 일, 사회적 지지감, 사회적 활동, 신체적 상태, 고통정도, 정서적 상태, 전반적인 상태, 상태의 변화, 삶의 질의 순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질병의 유무에 따라서 기능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건강관리유형에 따른 기능적 건강상태는 긍정적 건강관리를 한 대상자의 평균이 2.21이고 부정적 건강관리를 한 대상자의 평균이 2.58로서 긍정적 건강관리 계층이 부정적 건강관리 계층보다 기능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건강관리 계층에서 사회적 활동, 전반적인 상태, 사회적 지지감이 좋은 것으로 보여졌다.

4. 기능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건강연령이 낮을수록 즉, 긍정적 건강관리를 할수록 기능적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연령 측정 항목 중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과일 및 채소섭취를 많이하며 화에 대해서 금방 수그러지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기능적 건강상태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